

KOICA 지구촌에 피운 우담바라 초청전 축하

불교와 인연이 깊은 3국(네팔, 스리랑카, 미얀마)의 문화를 이곳 한국국제협력단 지구촌체험관에서 여러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담바라’는 3천년 만에 한 번 꽃이 피는 성스러운 꽃으로, 불경에서는 이 꽃은 희귀함과 구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담바라가 지닌 의미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활동의 의미가 맞닿아 오늘 개최된 전시회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친근한 이웃인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보여줄 본 전시회를 통해, 불교국가를 넘어 미래의 대한민국과 힘을 모을 동행 국가로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이어진 인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의 타래는 유독 우리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뿐, 이미 지구촌은 하나의 울타리로 만들어진 인드라망 공동체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외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사건까지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바탕에서 보면 세계의 여러 국가의 빈곤과 환경문제가 더 이상 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과거 세계 여러 국가의 도움으로 세계속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음을 경험삼아, 이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를 위해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것입니다.

조계종이 근본으로 의지하는 경전인 금강경에 ‘무주상보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다.’라는 자만심 없이 온전한 자비심으로 베풀어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분수대로 나누어주고, 진리의 말로써 마음이 빈곤한 자에게 용기와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며, 모든 중생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참된 보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보다 좀 더 하심하며, 좀 더 낮은 자세로 세계인과 함께한다면 우리의 위상은 오히려 더 높아 질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KOICA가 지속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세계속에 한국을 알리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감대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더불어 우리 불교계는 국가간 교류함에 있어 KOICA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전시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불기2557(2013)년 4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